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 8. 마드리드의 아침

1월 11일 토요일, 마드리드 첫 아침이 밝았다.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온 까닭에 너무 피곤해서 8시 30분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다. 지난밤에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쭈뼛다. 억지로 일어나 쪽포수처럼 쏟아지는 뜨거운 물에 씻고 나니 겨우 정신이 들었다. 곤히 자는 R을 깨우고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늘 일정을 정리해 본다.

오늘은 마드리드 왕궁(Palacio Real de Madrid)에서 시작해 마요르 플라자(Plaza Mayor)와 솔 광장(Puerta del Sol)까지 둘러 볼 예정이었다. 우리는 마드리드에서 4박 5일 머무르고 14일에는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것으로 일정을 짰다. 마드리드에서 가 보아야 할 곳은 수없이 많았지만 다 둘러 볼 수는 없으니 꼭 보고 싶은 곳으로 순서를 정해 가 보기로 했다.

사실 내가 마드리드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은 프라도 미술관이었다. 프라도 미술관에 가기 위해 마드리드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라도 미술관 관람을 위해서 내일은 하루를 온전히 비워 놓았다.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날 1월 13일은 마드리드 인근 중세 도시 톨레도(Toledo)에 가 볼 계획이니 아주 빠듯한 4박 5일이 될 것 같았다.

마드리드 왕궁을 관람하려면 티켓을 사야 한다. 당일 왕궁에 가서 사려면 줄을 오래 서야 한다고 해서 미리 예매를 했었다. 입장하는 시간도 왕궁이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 예약을 했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부지런히 가면 충분한 시간이다. 호텔에서 조식을 할 수 있었지만 어젯밤 늦게 식사를 한 까닭에 전혀 식욕이 없었다. 우리는 왕궁 관람을 마치고 느긋하게 점심을 먹기로 했다.

호텔 밖으로 나왔다. 정말 한적하고 조용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맞은편 스페인 내무부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었다. 군복을 입고 기관총을 메고 있는 모습이 밝은 아침에 보니 더 위압감이 들었다. 그것뿐만 아니다. 호텔 앞길 까에 아마도르 데 로스 리오스 길과 그 양쪽으로

나가는 길목에는 바리케이드가 촘촘히 쳐져 있어서 자동차들이 검문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 길에 호텔이 들어서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다. 우리는 검은 눈동자를 매섭게 치켜뜨고 서 있는 군인들을 지나쳐서 큰길 파세오 델 라 카스테야나로 나왔다.

마드리드 왕궁까지 길을 검색해 보니 걸어서 약 25분, 지하철을 타도 그 정도는 걸린다고 나온다. 우리는 마드리드의 아침 속을 걷기로 했다. 토요일인데도 쌀쌀한 아침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었다. 파세오 델 라 카스테야나 길을 쭉 따라 걸으며 마드리드의 골목들을 지나친다. 건물들은 모두 사각형에 균일하게 창문들이 나 있어서 다 비슷하게 보였고 그래서인지 엄숙하고 절제된 인상이었다.

계속 구글 맵을 보면서 걷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마드리드는 도시 자체가 고산 지형이라 길도 높낮이가 심해서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왕궁 입장 예약한 시간이 가까워 오느라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 하나?' 하니 R이 느긋하게 대답한다. "엄마, 이번에는 마음 편안하게 여행하기로 했잖아. 늦으면 어때? 늦게 들어가면 되지."

R과 나는 성격이 한참 달라서 여행 스타일도 많이 달랐다. 내가 여행도 시험공부 하는 모범생처럼 시간을 지켜 가며 딱딱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R은 세상 바쁠 것 없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스타일이었다. 앞으로 살날이 많은, 그래서 여행할 기회도 넉넉한 젊은 사람과 자신도 모르게 '언제 또 여기를 와 보라'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의 차이일지도 몰랐다. 어쨌든 이번 생일 여행은 쫓기지 말고 그저 재미있게, 편안하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벌써 왕궁 입장이 늦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한참 반성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호텔 앞 콜론 에스탄시온(Colon Estacion) 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간단히 왕궁 앞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마드리드의 주말 아침을 구경하면서 먼 길을 걸어 온 것이 힘든 들었지만 정말 좋았다.

##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남자 컷 \$15<sup>UP</sup> •여자 컷 \$25<sup>UP</sup>
  - 펌 + 컷 \$50<sup>UP</sup>
  - 칼라+컷 \$50<sup>UP</sup>
  - 칼라+헤어트리트먼트 \$60<sup>UP</sup>
- 좋아지는 고객의 머리결은 저희 기쁨입니다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뿌리 부분만 "하프 inch" 블록 살려주는

### 시크릿 하프 inch 펌

- 갈라진 가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 볼륨있는 생머리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 납작한 머리형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예약을 우선합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714)530-5755  
8762 Garden Grove Bl. #106, Garden Grove, CA 92844(김치나라 건너편)

##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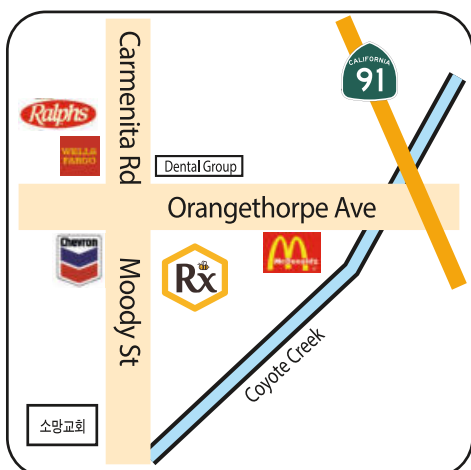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COVID-19 백신 접종 시작 **moderna**

## 건강한 약국, 꿀약국!



###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꿀약국<sup>TM</sup>  
Honey Pharmacy<sup>®</sup>

###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